

일본채란산업을 가다 ③ / 일본채란업을 주도하는 애계원 • 연재

3대에 걸친 양계인생, 애계원(愛鷄園)

연재순서

1. 계란내 콜레스테롤에 대한 새로운 상식 세미나
2. 생산자 중심의 일본채란산업
3. 일본채란업을 주도하는 애계원



▲ 이바라기 현에 위치한 30만수 규모의 오가와농장(小川農場)(애계원은 이바라기현과 사이타마현에 200만수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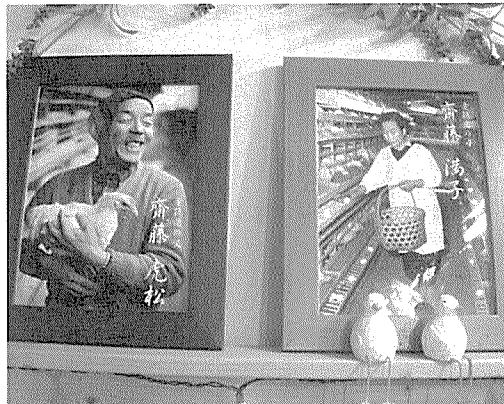
애계원의 탄생

애계원(愛鷄園)은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인 1923년에 창업 되었다. 현재 애계원의 후지오사이토 고문의 선친인 도라마쓰사이토(瀧藤虎松)씨가 젊은 시절 결핵을 앓게 되었는데 당시 결핵에 별다른 특효약이 없었기 때문에 계란 등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여 요양하는 수밖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계란을 구하기 위해 가나가와현(神奈川県)에서 10수로 양계를 시작한 것이 애계원의 시작이었다. 당시 요코하마에서 본격적으로 채란업을 확장하였고, 1960년대부터 수도권인 사이타마현과 이바라기현에 사업을 확장하면서 현재 중추와 산란계를 합해 총 200여만수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1일 계란 생산량은 120만

개로 일본의 채란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현재 가나가와현(神奈川) 요코하마(横浜)에는 애계원의 본사가 위치해 있으며, 사이다마현(埼玉縣)과 이바라기현(茨木縣)

에서 모든 계란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병아리는 연간 400만수를 조달해주고 있는 이바라기현 소재 조합부화장에서 조달받고 있다.



▲ 1923년 애계원을 창시한 도라마쓰사이토(齋藤虎松)씨와 부인의 젊었을 때 모습(농장과 판매장에는 도라마쓰사이토(齋藤虎松)씨의 사진이 놓여있어 가업승계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 대를 이어 애계원을 이끌고 있는 큰아들 후지오사이토(齋藤福士雄, 우)와 장손 다이텐사이토(齋藤大天, 좌)

천직으로 이끌어오는 채란업

80년을 이어오면서 3대째를 이어오고 있는 애계원은 도라마쓰사이토(齋藤虎松)씨의 세아들(후지오사이토(齋藤福士雄), 치헤이사이토(齋藤地平), 타이오사이토(齋藤大洋))이 고문, 회장, 사장직을 맡으면서 애계원을 이끌어가고 있다.

후지오사이토 고문은 현직에서 물러나 있지만 국내외의 홍보활동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한국을 방문해 일본의 양계산업 현황에 대한 강연을 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치헤이사이토 회장은 자택에도 컴퓨터가 연결되어 모든 농장의 정보를 실시간에 접하면서 총괄적인 업무를 보고 있으며,



▲ 애계원을 이끌어 가고 있는 도라마쓰사이토(齋藤虎松)씨의 세아들, 좌부터 후지오사이토(齋藤福士雄), 치헤이사이토(齋藤地平), 타이오사이토(齋藤大洋)-각각 고문, 회장, 사장직을 맡고 있다.

타이오사이토 사장은 실무를 맡아 회사의 운영방안 등을 계획, 추진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손자들이 모든 경영권과 생산을 맡아 움직이면서 일본양계산업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애계원은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분리, 책임제로 실시되고 있는데, 홍보 및 판매는 다이텐사이토(齋藤大天)씨, 생산·사양관리는 타쿠사이토(齋藤拓)씨, GP센타 및 유통은 카이타사이토(齋藤快太)씨가 맡아하고 있다. 이외에 질병은 일본의 질병전문가인 애구치이쿠오(江口郁夫) 박사가 질병연구센터 소장으로 있으면서 전체를 관장하고 있다. 요코하마 본사에서는 이들 간부 및 책임자 등 10여명이 모여 매월 이사회를 개최한다. 여기에서 회사의 발전방안 및 경영모색 등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소비자의 요구에 맞춘 농장경영

일본의 양계산업은 최근 들면서 대규모 농장의 확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이후 Coop 등 일본의 대형 마켓에서는 믿을 수 있고 체인점에 대량으로 공급해줄 수 있는 농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장들은 이런 추세를 주시하면서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있다.

애계원은 지난 1998년부터 HACCP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위생적이고 고품질의 계란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오는 하반기까지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ISO22000(환경, 품질 경영에 대한 인증)에 대한 인증을 받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기도 하다. 규모 확장 추세에 따라 금년 내에는 4억원을 투자해 12만수 규모의 계사를 증축하고 조만간 50억원을 투자하여 총 100만수의 시설을 더 늘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치헤이사이토(齋藤地平) 애계원 회장은 앞으로 일본은 대규모 농장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으며, 비위생적으로 계란을 생산하는 농장은 점점 사라져 갈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현재 일본의 10만 수 이상의 대규업자는 400여명으로 이들이 앞으로의 일본 채란업을 이끌어 갈 것으로 내다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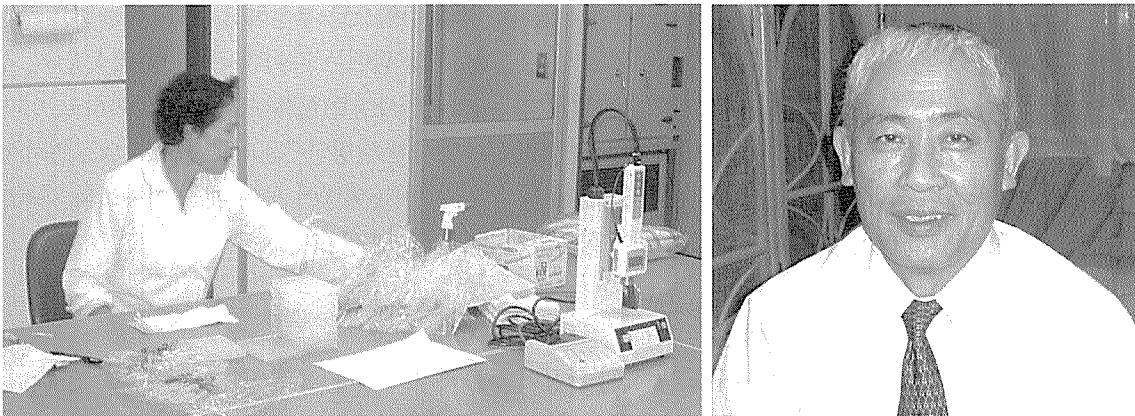
따라서 애계원은 생산자들의 힘을 집결시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해법을 찾아주고 있다. 지난 7월에 개최된 계란콜레스테롤에 대한 상식 세미나에 절반에 해당하는 진행비를 지원했는가 하면, 일본양계협회 및 사이타마와 이바라기현 양계협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대규업자들 모임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인재양성에 쓰는 힘

애계원은 사육규모가 늘어나고, 질병의 위험이 높아지면서 전문 인력양성과 확보에 가장 큰 힘을 쏟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0여년전 유능한 인재를 구하기 위해 유명한 일간지를 이용, 동경 등지에 2,000만원(국내에서는 상상하기 힘듬)을 들여 모집광고를 한 적이 있다. 당시 30명의 지원자가 몰려왔으며, 이중 10여명의 인재를 발굴해 근무를 시킨 결과 현재까지 모든 직원들이 아무 문제없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는 양계산업을 장치산업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몰려오고 있으며, 애계원에서도 5일 근무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유능한 젊은이들이 자부심을 갖고 근무를 하고 있다. 이처럼 직원들의 복지에 힘을 쏟으면서 오히려 생산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타이오사이토(齋藤大洋) 사장은 설명하였다.

질병의 방어가 농장의 성패좌우



▲ 이바라기현에 위치한 질병연구센터와 애구치이쿠오(江口郁夫) 소장(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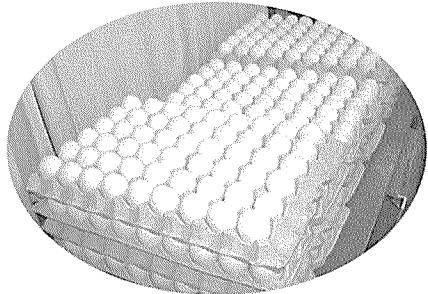
본 기자는 일본 방문중 이바라기현에 있는 질병연구센터 및 30만수 농장과 GP센터, 사이타마현의 한 계란 판매장을 방문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애계원을 접할 수 있었다. 농장 내부와 GP센터는 아쉽게도 질병방역차원에서 자동차 안에서 외부만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30만수의 농장은 5인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고상식으로 지어졌으며, 6만수 단위로 3개군이 사육되고 있으며, GP센터(12만개/h)가 농장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 계란을 신선하게 전국매장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다. 애계원에서 생산되는 계란은 일반란으로 판매가되는 것 이외에 특수란으로 요드란 12만수, 루테인란 2만수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애계원의 질병연구센터는 이바라기현에 자리잡고 있다. 애계원은 질병과 영양을 총괄하고 있는 애구치이쿠오(江口郁夫) 박사를 비롯 4명의 전문 수의사가 근무하고 있다. 모두 해외에서 질병을 연구한 엘리트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이후 기존의 질병 검사로는 미흡한 점이 있다는 판단아래 미국으로부터 3~4시간 내에 모든 질병의 원인을 알아낼 수 있는 장비가 주문이 되어 설치될 예정에 있다. 질병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농장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애구치씨는 모든 계군에 대해 혈청을 뽑아서 검사를 한 후, 이상 징후가 포착되는 계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애계원은 건강한 병아리를 얻기 위해서 부화장으로부터 입란대비 40%에 해당하는 병아리만을 선별해 입추를 시키고 있다. 소독에 대해서는 석회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하였으며, 국내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발판 소독조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는 비중을 크게 두지 않았다. 즉, 농장 출입시 신발을 바꿔 신는 것을 강조하였다. 일본에는 최근 아메리카 쪽에서 발생되고 있는 뉴모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음을 애구치씨는 언급하기도해 최근의 일본 질병동향을 알려주었다.

판매장을 통한 홍보활동

후지오사이토(齋藤) 고문의 장손인 다이텐사이토(齋藤大天)씨가 직접 운영하는 판매장을 찾았다. 판매장 내부는 10평 남짓, 하지만 하루평균 판매하는 계란만 해도 농장에 큰 이익을 남겨주고 있다. 벽과 바닥



사이타마현에 농장과 붙어 있는 계란홍보, 판매장에는 각종 흥보물들이 진열, 판매되고 있다.(54개의 계란도 판매장을 찾은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우)

에는 온통 계란 홍보에 대한 홍보전단, 캐릭터 및 계란들로 가득 차 있었다. 판매장은 농장에 붙어 있으며 애계원의 명성이 알려지면서 택배를 요청하는 경우와 판매장으로 직접 와서 신선한 계란을 사가는 고객들이 애용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미국 등 외국에서 계란을 주문하는 경우도 있는데 3일 이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깨지지 않도록 포장을 해 신선하고 신속하게 배달을 해주고 있다. 애계원에서는 지난 1997년 처음으로 싱가포르에 계란을 수출하면서 명성을 쌓아오고 있다. 매장 한 켠에는 할아버지 藤虎松씨와 할머니의 젊었을 때 사진을 진열해 대물림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이 대단함을 느꼈다.

JRC를 움직이는 애계원

일본의 JRC는 농장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대군업자들이 결성을 해서 1981년 처음 탄생하였다. 이 모임의 중심에는 애계원이 있었다. JRC 사무실은 동경에 있으며, 모토야스 우노(宇野元康) 전무가 모든 일을 보고 있다. 현재 JRC회원은 20개 농장이 있는데 더 이상의 회원을 받질 않고 있다. 이곳에서는 회원농가에 가까운 사료회사에 일령, 생산성, 계절 등을 고려하여 배합비를 제크한 후 사료공장에 통보를 해주고 있다. 배합비는 1주일 단위로 체크하여 관리를 해주고 있으며, 사료회사들도 배합비에 불만이 없이 농장에 적극 협조를 해주고 있다.

애계원의 사료도 5명의 사료전문가를 두고 JRC와 연계하여 계군의 생산성을 기초로 하여 배합비를 주문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생산책임을 맡고 있는 타쿠사이토(鶴齋石)씨에 의하면 애계원에서 참여하고 있는 종계장의 배합비도 별도로 비싼 사료로 배합비를 만들지 않고 신란계와 같은 배합비를 적용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단지 약간의 비타민 제제만을 첨가하는데 성적도 잘 나오기 때문에 굳이 비싼 사료를 먹일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였다. 이 대목은 우리나라 종계장도 귀담아 들을 이야기인 듯 싶다.

3회에 걸쳐 일본양계산업에 대해 소개를 했다. 4박 5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일본의 채란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통역 등 취재에 협조해주신 한국 애계원 양기원 사장님께 지면을 통해 감사를 드린다.

취재 | 김동진 흥보팀장
dj@poultry.or.kr

